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우수사례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전북자치도 지정 지역특화형 우수축제 2년 연속 선정

군산시는 도시재생 선도사례 대표 축제인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가 올해 1월에 2023년 개최하였던 축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지역특화형 우수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지역특화형 우수축제 지정 쾌거와 함께 도비 2,8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군산우체통거리는 2016년 지역상인들이 폐우체통에 그림을 그려 상가에 세우는 아이디어로 첫걸음을 시작해, 2020년 도시재생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 2023~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대표 거리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는 올해도 대표 프로그램인 나만의 우표 만들



기, 느린편지 쓰기, 상가제품 무료체험, 우체통 홍보관 이용의 날, 1970년대 지전거 탄 우체부 이벤트, 매직버블쇼 등을 다채롭게 준비해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우체통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우체통 그림을 그려 군산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에 제출하면 3개 작품을 선정해 실제 우체통을 제작하

는 이색프로그램도 진행해 축제에 흥미를 더할 계획이다.

군산시 김봉근 문화관광국장은 "2024년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에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해 축제 방문객들에게 참신하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화합형 축제로 꾸미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동킥보드 대차 방안 마련해야”

손진영 익산시의원, 자유발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영등1동, 동산동)은 24일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익산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손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

는 2,386건으로 10배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거리 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현행 법률상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지자체 허가 및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어 강력한 법적 규제가 없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자치법규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정부의 법규나 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시도 2021년 제정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자원순환 활성화 재활용품 물품 교환 추진

익산시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 증대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재활용품은 종이팩과 폐건전지 등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와 건전지로 교환해준다

종이팩은 200ml 50개, 500ml 25개, 1000ml 15개를 화장지 1개로 교환할 수 있고, 폐건전지는 15개당 새 건전지 1개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종이

팩(우유·주스·두유 등)은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펼쳐서 건조한 후 가져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은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촉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이팩은 고급 펄프가 사용돼 휴지로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파지와 함께 배출돼 재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폐건전지는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고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 최대 90% 지원

익산시가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한다.

현재 익산지역 전체 논·밭 면적의 50% 가량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익산시는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22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비 10%, 그 외 품목을 5%씩 더 지원해 농업인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구비와 지방비, 자부담금 등으로 마련된 사업비 66억 6,000만 원에 시 자체 예산 5억 4,000만 원이 추가로 더해진다.

가입 품목은 벼와 밀, 보리, 과수, 시설작물, 뽕은감, 포도버섯 등 임산물을 포함해 총 57개 품목이며, 각 품목별로 보험 가입 시기가 다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원협 또는 품목조합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한데다 최근엔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의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관심을 갖고 품목별 시기에 맞게 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노후 공동주택 안전하게... 익산시, 시설개선 지원

부대시설, 공유시설 개·보수 지원·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

익산시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비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시는 다음달 21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 보존등급이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세대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

이놀이터 등 부대 시설과 입주민 공유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도 해당한다.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에 나선다. 근무·휴게 공간의 도배, 장판·창호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냉·난방설비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해 인락한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원 한도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만 원, 20세대 이상은 500만 원이다. 공동주택 단지 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21일까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단지 선정이 결정된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으로 지원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내 혈압·혈당 숫자 알기’ 캠페인

익산시가 심뇌혈관질환 예방으로 건강익산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2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에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내 혈압 내 혈당 숫자 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캠페인은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정상범위를 알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

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른 건강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형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예방 필요성과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캠페인을 통해 만성 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명절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사수에 나선다.

시는 안전한 농·수산물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명예감시원과 함께 대대적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전통 재래시장과 일반·휴게음식점 등 402개소다. 전통 재래시장의 경우 생선류, 육류 등 명절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는 29개 품목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발생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의 중대 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 협의회 제5회 회의 개최

군산시가 청년들 강당에서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제5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산시 해상풍력 2024년 사업계획보고와 주민수용성 확보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영역의 착수보고가 이루어졌다.

군산시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단지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주민수용성 영역의 책임연구인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본부장(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은 군산시가 민관협의회 합의에 기반한 한국 계획인지 해상풍력 1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협의회 위원들의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어촌계 의견이 반영된 입지후보 도출 및 상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